

가벼운 웃음으로



가볍게 1천만 돌파

설 연휴 하루 100만명 관객 모아 흥행 독주 ... 개봉 15일째 올해 첫 천만 영화 등극

‘극한직업’이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최근 한국영화의 부진을 뚫고 개봉 15일째인 6일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됐다.

◇ 한국영화 부진 뚫은 가파른 상승세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 기준으로 ‘극한직업’의 누적 관객 수는 1천만3천87명이다. 전날까지는 939만7천163명이 관람했다.

이로써 이 영화는 지난해 8월 천만을 넘은 ‘신과함께-인고연’에 이어 역대 23번째로 천만 영화 클럽에 가입했다.

‘극한직업’의 천만 관객 돌파 속도는 23편의 천만영화 중 ‘명량’, ‘신과함께-인고연’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다.

개봉 10일째인 지난 1일 ‘국제시장’, ‘변호인’,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다른 천만 영화보다 빠른 속도로 5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영화는 설 연휴 시작인 지난 2일부터는 하루 평균 100만 관객을 불러모았다. 지난 2일 600만, 3일 700만, 4일 800만, 5일 900만 관객을 넘어섰다.

◇ 가벼운 코미디가 흥행 비결 ‘극한직업’이 단기간에 천만을 돌파한 데는 무엇보다 장르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이 영화는 해체 위기의 마약반 형사 5인방이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창업한 치킨집이 전국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국가부도의 날’, ‘마약왕’ 등 지난해부터 잇달아 나온 무게감 있는 한국영화



에 지친 국내 관객들이 가벼운 코미디 영화를 찾았다는 것이 영화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기준에 무겁고 사회성 있는 작품을 찾았던 한국 관객들이 가벼운 영화를 선호할만한 시점이 왔을 때 이 영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단 ‘극한직업’은 가벼운 웃음을 준다. 이것이 관객의 요구와 맞아 떨어진 것”이라며 “이 밖에 연기자들의 연기도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많이 웃긴 영화라는 것이 천만 돌파의 비결이다. 그동안 관객들이 이런 영화를 많이

가다렸다”며 ““웃기고 싶었다”는 이병헌 감독의 연출 의도와 코미디에 감이 있는 배우들이 만나서 앙상블이 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연휴 전에 이미 500만 명을 돌파해 이미 본 관객들의 입소문도 주효했다”며 “영화가 쉬워서 남녀노소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웃음과 범죄 장르를 맛깔나게 버무린 영화 구성과 제 몫을 해내는 등장인물들에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

대사에 녹아있는 아재 개그의 웃음 타율이 제법 높고 범죄조직을 잡기 위해 치킨집을 창업한다는 설정은 기발하다. 서

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치킨을 소재로 삼아 소시민의 애환까지 보듬었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잔내 나는’ 소시민들이라 생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강력한 경쟁자 없었던 설 극장가... ‘극한직업’의 독주

‘극한직업’이 설 극장가를 장악한 데는 강력한 경쟁자가 없었던 덕분이기도 하다. ‘극한직업’보다 일주일 늦게 개봉해 설 극장가를 양분할 것으로 예상했던 ‘행반’은 겨우 100만을 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꿈으로 불리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알리타: 배틀 앤젤’은 지난 5일 개봉했지만, 개봉일이 연휴 막바지인 탓에 ‘극한직업’의 흥행 동풍을 막지 못했다.

예년 설 연휴와 비교하면 ‘극한직업’의 독주가 더욱 두드러진다.

할리우드 영화인 ‘블랙 팬서’와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골든슬럼버’, ‘흥부’ 등 한국 영화들의 대결이 펼쳐진 지난해 설 연휴에는 ‘블랙 팬서’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승리했다. 2017년 설 연휴에는 한국영화 ‘공조’와 ‘더 킹’이 쌍끌이 흥행을 했다.

전통적으로 설 연휴에는 한국영화, 특히 코미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 최고 흥행작은 2009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영화였으며 이 중 7편이 코미디였다. /연합뉴스

배우 주원 전역...“드라마 빨리 하고파”

“좋은 연기로 보답할 것”

마중은 팬들과 일일이 악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 생활을 마쳤는데,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

배우 주원(본명 문준원·32)이 20개월간의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5일 전역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투복 차림으로 강원 철원군 3사단 백골산병교육대 정문을 나온 그는 취재진 앞에서 “팬들이 많이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드라마가 하고 싶었다”며 전역 소감을 전했다.

주원은 “다들 가족처럼 챙겨주 덕분에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전역을 마중 온 팬들의 모습에 감격하며 “한국은 설인데 추운 날 외워서 고맙고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관련한 물음에는 “기다려 준 시간 만큼 좋은 연기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취재진과 인터뷰를 마친 뒤 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날 100여 명의 팬은 주위에 마스크와 목도리 등을 한 채 설날 새벽부터 백골산교대 정문 앞에서 주원의 전역을 기다렸다.

‘어서와요’, ‘수고하셨습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팬들은 주원의 손짓 하나하나에 연신 환호하며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



2006년 뮤지컬 ‘알타이보이즈’로 활동을 시작한 주원은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각시탈’, ‘굿닥터’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방송과 영화 등으로 활약하다 2017년 5월 입대,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해왔다.

그는 정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안을 적용받아 본래 전역일인 2월 15일보다 열흘 빠르게 이날 전역했다. /연합뉴스

갯세븐, ‘아이 윈트 렛 유 고’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차트 1위

그들 갯세븐이 일본 미니 3집으로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일본에서 발매된 갯세븐의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 윈트 렛 유 고’(I WON'T LET YOU GO)가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아이튠스에 공개된 이 앨범은

태국(2위), 싱가포르(4위), 인도(8위) 등에서도 상위권에 안착하며 순항 중이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감성적인 가창과 절제된 안무가 조화를 이룬다. 아울러 앨범에는 진영-유겸, 마크-백범, JB-영재로 구성된 세 유닛(소그룹)의 곡도 수록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애니캐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5 보보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뒤뚱뚱뚱 로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설 기획 영상앨범 산(재)	15 내 사랑 치유기(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가로채널(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소잡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건축물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력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왜그래 풍상씨(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김삼덕>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스테라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0 킴블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이특·신동의 유쾌한 설날 : 간장불백과 대파무침)
05:30 통일 미라보기 <뉴스 금지>	
06:00 한국기행(재) <겨울에는 울릉도 4부 섬 속의 섬 고립무원>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보가 풀리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00 두다다콩 09:30 원더볼즈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6:30 알라라 뿌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콩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EBS 뉴스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한반도 평화기행-기차길 옆 DMZ, 연천>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10 과학 다큐-비온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7일(음 1월 3일 甲寅)	
	36년생 출생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48년생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이다. 60년생 목표가 분명하다면 재물을 부른다. 72년생 핵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겠다. 84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5, 83		42년생 노력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54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66년생 참으로 답답하겠다. 78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90년생 일관 되어야만 유익한 성공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58, 55
	37년생 대처하지 않으면 불쾌하게 되어 있다. 49년생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 61년생 절호의 찬스이니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자. 73년생 모든 해어질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85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58		43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5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67년생 바람직한 일이 생길 것이다. 79년생 다른 생각일랑 접어 버리고 본연의 생활에 충실 하는 것이 이익이다. 91년생 조건이 호전되면서 훨씬 용이해진다. 행운의 숫자 : 14, 91
	38년생 가까이 할수록 손해이니 속히 정리하자. 50년생 작은 흠결이 결정적인 패착의 원인이 된다. 62년생 막연한 생각에 그친다면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74년생 도움이 될 것이니라. 86년생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 아니하다. 행운의 숫자 : 85, 21		44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는 법이다. 56년생 다른 일이 겹치는 형상이다. 68년생 염려할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80년생 의견을 개진한다면 바람직한 반응이 있으리라. 92년생 과신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06, 08
	39년생 안금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51년생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63년생 앞선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노파심을 버리자. 75년생 맹목적이려면 무의미하다. 87년생 임시방편적이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92, 87		45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쓰게 된다. 57년생 반복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69년생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맞다. 81년생 불일치로 인관계에 불협화음이 들리니 체제를 잘 해야겠다. 93년생 노출된 외관까지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32, 41
	40년생 활동한다면 획기적인 생산 효과가 있다. 52년생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치워야 한다. 64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76년생 집착을 버리고 객관성을 도모하라. 88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1, 95		34년생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크다. 46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이 중요하다. 58년생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도록 하자. 70년생 불일치로 인한 폐단이 보인다. 82년생 부수적인 일은 부류하고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9, 44
	41년생 생활에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53년생 완전히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65년생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으리라. 77년생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89년생 판이란 사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01, 52		35년생 어긋나지 않게 조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47년생 안금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59년생 처음부터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71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버려둬도 되는 판세이다. 83년생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04, 90